

<교과서 64쪽> 百聞不如一見

위 문구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이담속찬(耳談續纂)」에 나오는 말로, 중국 속담 중 94번에 위치하고 있다. 이담속찬은 序(서문), 中諺(중국속담), 東諺(우리나라 속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담속찬의 내용]

百聞不如一見。【《漢書·趙充國傳》○聞者憑人口，見者由我目】

다산은 속담인 百聞不如一見 아래에

[《한서 조충국전》○聞은 사람들의 입에 의지한 것이요, 見은 나의 눈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해설을 달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그 유래가 한서(漢書)의 조충국(趙充國)전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전 및 해석]

趙充國是武帝時破匈奴的大將軍。宣帝時羌人入侵邊疆하여, 攻城奪地하며, 殺害吏民이라。宣帝召集群臣計議할새, 趙充國自告奮勇하며, 表示願意帶兵抗敵이라。宣帝問他需要帶多少兵馬한데, 趙充國說: 「百聞不如一見이라。軍情在遙遠的地方이니 是很難揣測的이라, 我願意親自到西北邊境去看看하고, 然後擬好作戰計畫하여, 再向陛下報告리라。」趙充國到了邊境仔細考察後에, 擬定了駐兵屯守하고, 整治邊境하여, 分化羌人的策略하니, 不久西北邊境終於安定이라。

《漢書·卷六九·趙充國辛慶忌傳·趙充國》

조충국은 무제 때에 흉노족을 멸한 대장군이다. 선제 때에 강족이 변방을 침입하여 성을 공격하고 땅을 약탈하며 관리와 백성을 살해하였다. 선제가 여러 신하를 소집하여 논의할 때, 조충국이 스스로 용맹을 알리며 병사를 거느리고 적과 대항하겠다고 하였다. 선제가 그에게 얼마의 병사와 말이 필요한지를 물음에 조충국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군대의 실정은 먼 곳에 있으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친히 서북 변방에 가서 보고 난 뒤에 작전 계획을 세워 다시 폐하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충국은 변방에 이르러 자세하게 살핀 후에 병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며 변방을 다스려서 강족의 책략을 분열시키니 오래지 않아 서북 변방이 마침내 안정되었다.

[해설]

다산은 조충국의 일화에 나온 「百聞不如一見」을 증극속담으로 자신의 저서인 耳談續纂에 소개하고 있다.

이 속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천 백번 말한 것을 듣는 것이 친히 한 차례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聽別人述說千百遍，不如親眼看一次來得真確.)”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았어도 그 이면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百聞不如一見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